

조선시대 정치사를 다시 보며*

Rethinking the History and Politics of Choson

이정일 _동북아역사재단

Lee, Joseph Jeong-il _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필자는 정치사 전공이 아니다. 게다가 국내외적으로 조선시대 정치사는 한국사 학계 뿐 아니라 정치학 학계에서도 아직 개척되고 있는 분야다. 본서에 대한 서평 문의를 받았을 때 조선후기 정치사 전공자가 아닐뿐더러 정치학에 무취한 인 필자로서는 저어함이 있었다. 그러나 공부를 하면서 조선후기 사상사는 그 핵심 주체인 당시 양반 지식인들의 학문적 노선과 정치적 노선이 상당히 중복되기에 정치적 관계의 전후 문맥에 대한 이해 없이는 사상적 추이의 역동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또한 조선시대 정치와 사상의 연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실체로 연구해야 할 대상 가운데 하나가 가문이 아닐까 생각해 왔다.

『朝鮮後期黨爭研究』¹⁾의 증보판인 이희환 교수의 『조선정치사』는 최근까지의 조선시대 정치사 연구에서 나타나는 제 문제들을 꼼꼼히 짚어가면서 저자 본인의 연구 성과를 새롭게 반영했다. 시기나 주제 면에서 한 우물을 파는 노학자의 열정과 통찰이 묻어난 연구서가 흔치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본서에 대한 서평은 누구나 부담을 느낄 것이다. 원사로 독해에 대한 내공이나 當代를 이해하는 노하우에 있어 태부족한 필자로서는 더욱 그러하다. 先學을 통해 조선시대사를 보다 폭 넓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고 생각한다.

먼저, 1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본 저서에는 좀 더 확장된 머리말과 함께 「제1

* 이희환, 『조선정치사』(혜안, 2015) 서평

1) 이희환, 『朝鮮後期黨爭研究』(國學資料院, 1995).

장 사람봉당론의 실상」, 「제2장 선조대 동서 분당과 정여립 옥사」, 「제3장 광해군대 이후 현종대까지의 정국」, 「제6장 한 당인의 애환과 당쟁의 원인」의 네 장이 새롭게 추가돼 있다. 이전 내용으로 구성된 「제4장 숙종대 환국과 정쟁」, 「제5장 경종대 당쟁과 영조의 탕평책」의 경우는 각 결론 부분에서 다소 수정이 보이지만 내용 상 크게 바뀌지 않았다. 시기적으로 이전 저서보다 한 세기 더 늘어난 東西 分黨 전후로부터 18세기 말엽까지 약 200년 간 발생한 정치적 사건들의 전개와 그 쟁점 및 의의를 분석했다.

본서는 정치라는 렌즈를 통해서 조선의 역사적 동력을 바라본다. 기존의 동시기 관련 연구서들과 눈에 띄게 다른 점은 사학사적 접근도를 높였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저자가 역사 서술, 즉 historiography의 영원한 숙제인 사실과 가치 내지는 사료와 해석 사이에 상존하는 괴리를 인식하면서 정치사 서술의 새로운 방향을 추구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일반적으로 기존 연구서들은 중앙 권력에서 벌어지는 정치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의 대전제, 구체적으로 식민사학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및 대안 창출을 바탕으로 해당 사료 내지는 인물을 분석, 정리, 배열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소재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으며 따라서 어떤 정파 및 그와 관련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심화 연구의 특성을 보인다.

소재주의적 심화 연구는 정치 본연의 복합적인 성격과 맞물려 비전문가들로 하여금 조선 후기 정치사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복합성을 본질로 하는 만큼 오히려 當代의 다양한 역사 주체들이 가진 관계망과 관계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고찰하고 나아가 當代의 문맥을 보다 선명하게 재구성할 수도 있다. 연구자가 복합성에 주목하면서 역사 주체들의 다양한 관점이 어떻게 수렴되고 분기되는가를 현장감 있게 포착한다면 사실과 가치 내지는 사료와 해석의 긴장을 보다 풍성한 논의의 장으로 이끌 것이다. 이는 관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사실과 가치 내지는 사료와 해석의 긴장이 건설적으로 담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조선후기의 정치 현실을 보다 높은 해상도로 관취하고 소재 중심의 정태적, 분절적 연구 경향을 뛰어 넘어 주제 중심의 동태적, 통합적 연구 경향으로의 전망을 제시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서에 주목해야할 이유로 사학사적 접근성 제고를 꼽았다. 바로 이전 문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점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식민사학에 대한 대척점으로서 기존 해방 이후 국내 학계가, 특히 민족주의 사학의 경우, 어떤 하나의 대전제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존 연구가 반식민주의 사학의 당위성, 즉 가치를 조선시대 정치사 서술에 과도하게 투여시키면서 발생한 용어와 개념의 오용 그리고 이에 수반된 사료 해석 상 문제점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식민사학 극복이라는 아젠다가 부각되고 반식민 사학의 해석이 확산되면서 여기에 사료 해석이 짜 맞추지게 된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斷章取義가 문제의 본질이다.²⁾ 연구자가 현재의 가치에 구속당한 채 과거의 사실을 거꾸로 돌아봄으로 인해서 인용 사료의 정확한 해석에 못 미치는 면도 보였다. 결과적으로 관점의 균형추가 가치로 쏠리면서 當代의 문맥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는 탈문맥화 현상이 발생했던 것이다.

좀 더 넓게 한국사 서술이란 측면에서 볼 때 저자의 지적은 한국사 서술에 있어서 국내 학계의 進歩性 강조와 식민사학의 停滯性 강조라는 상반된 두 역사 서술의 충돌이 빚는 문제를 잘 조명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전자는 다수 연구자들이 지지하는 반면 후자는 소수의 국내 학자들과 해외 한국사 연구자들이 연속성의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논의해 왔다. 본서는 자칫 식민사학에 대한 옹호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재적 발전론의 재고를 주장하는 대목에 서처럼, 기존 국내 학계의 진보 내지는 변화에 대한 과신과 그에 수반하는 사료 독해의 부정확성을 비판하고 있다.³⁾

기존 국내 학계가 노정한 진보 내지는 변화로의 편향에 대한 비판적 자세는 조선후기 역사를 읽는 다양한 방법론 개발을 모색하는 연구자들에게 학술적 울

2) 이희환, 『조선정치사』(해안, 2015), 39-44

3)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반박의 구도에서 벗어나 내재적 발전론 등 진보 내지는 변화로 대변되는 가치가 이 시기 정치사 서술에 있어 어떻게 사료 곡해의 환경을 조성하고 역사적 사실을 압도했는가를 보다 심도 있게 파고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본서의 연구가 관점에 대한 성찰을 기반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학계에서 구축된 진보 추구의 구도를 따라 맴돌며 사료에 견인된 채 소재주의적 흐름을 追隨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서 있지 않을까 한다.

림을 줄 수 있다. 일례로 사림이라는 용어에 대한 쓰임이다.⁴⁾ 일반적으로 사림은 조선 중기의 특정 신진세력으로 설정해서 개혁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인식됐다. 저자는 그 용어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 및 이에 수반된 사료 독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걸쳐 사료 상 등장하는 사림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그 용어들이 어떻게 시기별로 사용됐는가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기존 학계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보수적 훈구 對 개혁적 사림이라는 이분법으로부터 탈피할 때 사림의 역사적 실체가 보다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식민주의에 의해 좌절된 주체적 근대화의 시원에 집중했던 국내 학계는 조선시대 역사 서술에 있어 변화와 개혁은 올바른 방향이었고 보수와 지속은 역방향이었던 가치를 개입시키는 경향이 강했다. 이 과정에서 훈구-사림의 이분법은 사림의 개혁성과 이를 통한 조선 시대의 변화를 강조하는 분석틀로 기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저자는 한 가문이나 개인에게서 시차가 있다 할지라도 사림과 훈구의 두 측면이 모두 나타난 경우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을 역설한다. 사림 가문이 훈구 가문으로 전화하거나 또 그 역으로 진행된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혼인 관계로 엮어진 가문들의 인적 연망을 살펴보면 사림과 훈구의 이분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들의 복잡한 함종연형은 當代의 문맥을 투시하지 못하면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사림 세력의 정치적 동선을 當代의 문맥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림과 훈구의 대립 보다는 본서에서처럼 중앙 권력의 중심부와 깊게 연결된 인물 및 그 가문을 중심으로 역학 관계의 실상을 조명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본서에 실린 소론계 대표 주자인 雲谷 李光佐(1674-1740)에 대한 연구는 유의미하며 조상 선양 차원의 가문 연구와는 차별화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노론계와 남인계 인사들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성화 돼 있으나 소론계의 경우 그 내부 구성 및 노론, 남인 인사들과의 교류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또한 가문 간 연계는 당시 사림 세력의 정치적 지향, 학술적 특성, 문화적 취향, 사회

4) “사림이 당시에는 일반 명사로 쓰였지만 현재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사림은 역사 용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 용어는 그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 적절한 용어가 없으면 새로운 용어를 개발하여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림처럼 본래의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의 역사 용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이희환, 위의 책, 61.

적 성격을 상호 연동케 하는 실질적인 매개체였기에 당시 政局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인물 및 가문에 대한 연구가 이분법적 사고와 선양 차원을 지양하고 當代의 문맥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으로 거듭난다면 이는 기존 정치사 연구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다.

국내 학계에서 16세기 사림이 조선 전기 정치사의 키워드라면 東西 分黨 이후 18세기 말엽에 이르는 조선 후기 정치사의 키워드는 朋黨이다. 본서는 이 시기에 벌어지는 정국 변동, 그 격동과 파동을 4장에 걸쳐 파헤쳤다. 이와 더불어 사료와 해석에 대한 저자의 고민을 간과할 수 없다. 저자는 국내 학계가 식민 사학의 停滯論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봉당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일본학자 이시이 도시오(石井壽夫)의 견해를 끌어드린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봉당긍정론이 사료 분석과 이를 통한 역사적 문맥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에 토대를 둔 연구방법론으로 개발됐다고보다는 이시이 도시오의 경우에서 처럼 확고하지 않은 가설을 바탕으로 입론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실록을 통해 사료를 재검토하면서 대부분의 관련 기사가 오히려 봉당에 의한 폐해를 강조하는 부정적 평가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 폐해가 심지어 20세기 초 한국 사회에까지도 지속된 사실을 덧붙였다.

물론 當代의 목소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실록 기사 뿐 아니라 문집 등 다양한 1차 사료들을 보다 촘촘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실록이 공식 문서이고 또 편찬 과정을 거치기에 봉당을 부정적으로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시이 도시오가 이학지상주의 국가사회 모델에 입각해서 조선후기 정치를 그 전개 양상에 따라 土禍-朋黨-蕩平-戚族政治의 순서로 도식화 한 것은 이시이 도시오 자신이 표명하듯이 학문적으로 정련되지 못한 小考 수준이다.⁵⁾ 국가, 중앙 정치, 엘리트, 조선 유교 등 주요 주제들이 혼재돼 있고 그 개념과 상호 관련성에 대한 설명은 상당히 추정적이다. 저자는 국내 학계가 이러한 학술적 숙성의 부재를 간과하면서 조선후기의 정치 현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시이 도시오의 가설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점을 강하게 비판한다. 실제로 한국을 포함한 동양의 역사에 대한 1940년대 일본 사학계의 인식과 서술을 면밀하게

5) 이시이 도시오(石井壽夫), 이태진 編, 『朝鮮時代 政治史의 再照明』(汎潮社, 1985).

검토하지 않은 점은 차지하고라도 當代의 붕당 관련 기록에 대한 균형 잡힌 텍스트 분석 없이 이시이 도시오의 긍정론을 획기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인 것은 탈식민사학이라는 가치가 역사적 사실을 압도하는 형세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붕당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가 東西 分黨 이후 약 250여년 이상 진행된 상호 갈등의 지속이다. 저자는 근본 이유로서 이해 상충을 들고 있다. 가시적으로는 당시의 복잡한 정치 현실을 이해 상충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해 상충은 정치 뿐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도 수면 아래 잠재된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치사적 현상의 발생과 전개에 내재된 이해 상충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적 요소(who), 원인(why), 패턴(how), 문맥(context) 등의 항목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구조적 분석이 가해져야 한다. 저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의 정치사 무대에서 주연은 한양과 근기 지역을 중심으로 관료화되고 별열화된 양반 가문들이었다. 이들이 내부에서 뿐 아니라 주변부와의 연대 및 차별을 추구한 방식과 원인을 규명하고 그 當代의 맥락을 파악하는 작업이 바로 그러한 분석이다. 이에 근거해서 국가와 지식인 / 엘리트의 관계, 지배 엘리트의 성격, 지배 엘리트와 지방 엘리트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이 시기 정치 역학의 지형도를 재복원한다면 조선 정치사의 특성과 역사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이다.⁶⁾ 이러한 방법론은 조선

6) 피에르 부르디외는 내부 분화 및 차별화가 갖는 힘을 논하면서 가장 같은 속성을 지닌 한 집단으로 범주화된다 하더라도 그 집단 내부에는 늘 다름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내부 분화 및 차별화는 하나로 범주화된 집단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으며 오히려 그 집단 당사자들 간 내부 갈등이 가열차게 진행될 때 그 집단의 정체성이 구체화 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내부적 역학 관계에 상존하는 내적 다름 -내부 분화 및 차별화- 은 타 집단들과의 다름을 가장 효율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실천 전략으로 작동할 수 있다. "The struggle for the specific difference, the last difference, masks the generic properties, the common genus, the 'objective' solidarities, the class, which exist only for the outside observer and which the work of 'politicization' seeks to bring into the consciousness of the agents by overcoming the effects of their competitive struggles. The struggles aim not to abolish the classification or transform its principles but to modify individual positions in the classification, and they therefore imply a tacit recognition of the classification. Dividing those who are closest and most alike, they are the perfect antithesis and the most effective negation of the struggle against another class, in which the class itself is constituted." Pierre Bourdieu, *The Logic of Practice*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5), 138. 이러한 시각은 조선시대 정치사에 등장하는 동인, 서인, 북인, 남인, 대북, 소북, 노론, 소론, 낙론, 호론, 시파, 벽파 등 다양한 당파들의 동선을 고정된 하나의 범주로 묶지 않고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치사가 도식화나 일률적 틀에서 벗어나 비교사적 연구를 축적하고 그 외연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해 상충은 결론이 아닌 시작이어야 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저자는 기존 조선 정치사 연구에 있어 사림과 붕당에 대한 해석이 지나치게 국내 학계의 식민사학 극복이라는 가치에 짜 맞춰진 점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훈고-사림의 대립, 사림정치, 붕당정치, 탕평정치 등의 용어는 해방 이후 한국사 밝게 보기 프로젝트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자는 발전론과 진보의 도식에 매인 조선시대 정치사 서술을 재검토했다. 저자의 열정으로 비추어 볼 때 영조 이후 철종에 이르는 19세기 정국에 대한 연구가 포함된, 즉 조선 정치사의 숲이 드러나는 또 하나의 증보판을 기대해 본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식민사학을 포함하는 일본 사학계 자체가 근대 유럽 중심의 세계사 서술에 대한 안티테제를 개발하고 일본 중심의 세계관을 창출하는 데 부신했으며 그 결과가 현재 국내 학계에도 익숙한 東洋이라는 범주와 東洋史라는 개념이다.⁷⁾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저자의 다음 연구가 진행된다면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속에서 비교 가능한’ 조선 정치사의 서술을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7) Stefan Tanaka, *Japan's Orient: Rendering Pasts into Histor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